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잔걸음

전북교육청,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학년도 1학기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9개 시군, 21교, 58과목)과,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2개 시군, 2교, 4과목)을 4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진 상태지만 도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학생 개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 6개교를 추가 지정해 2021학년도부터는 8개 거점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학교에서 지정한 일자, 시간에 학교 또는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해 교실온라인(https://edu.classon.kr)에 접속해 수강하는 것이다.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 거점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임하면 된다. 특히 이번 면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거점학교에서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기한 및 면접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교육과정도우미-일반고자신감프로젝트-자료실), 거점학교 홈페이지, 소속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순도순/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전주지역 8개교, 군산지역 2개교, 익산지역 2개교, 정읍지역 4개교, 남원지역 1개교, 무주지역 1개교, 순창지역 1개교, 고창지역 1개교, 부안지역 1개교다. 거점학교별로 운영하는 과목은 당해 학교에서 3개년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소속학교 3개년 교육과정에 미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제한한다.

이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따

른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 일부다. 특히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면접과정을 통해 인성, 흥미, 참여동기 등 성적과는 무관한 학생의 진로와 흥미만을 살펴본 후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업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중심 활동형·모둠형·토론형·발표형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축구협회(회장 김태은)는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30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 사랑의 헌혈행사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전북축구인들 '사랑의 헌혈'

전북축구협회, 헌혈증 김태수 선수에 전달

전북축구협회(회장 김태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30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 사랑의 헌혈행사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이날 경남 밀성초등학교 축구부 김태수(4학년)선수의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과 투병중인 사실을 인지, 참가자들의 마음이 모여 헌혈증 기부 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기부된 100여장의 헌혈증은

김태수 선수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유종의 정무이스는 "전라북도 풀뿌리 축구를 책임지고 있는 축구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김태수 선수를 돕고자하는 마음을 모아 더욱 뜻 깊은 캠페인이 됐다"며 "김태수 선수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병마를 이겨내고 빨리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과 교수들 외국인유학생에 생필품 제공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미용건강과 교수들이 미얀마, 베트남 등 외국인유학생을 위해 쌀, 라면 등 생필품을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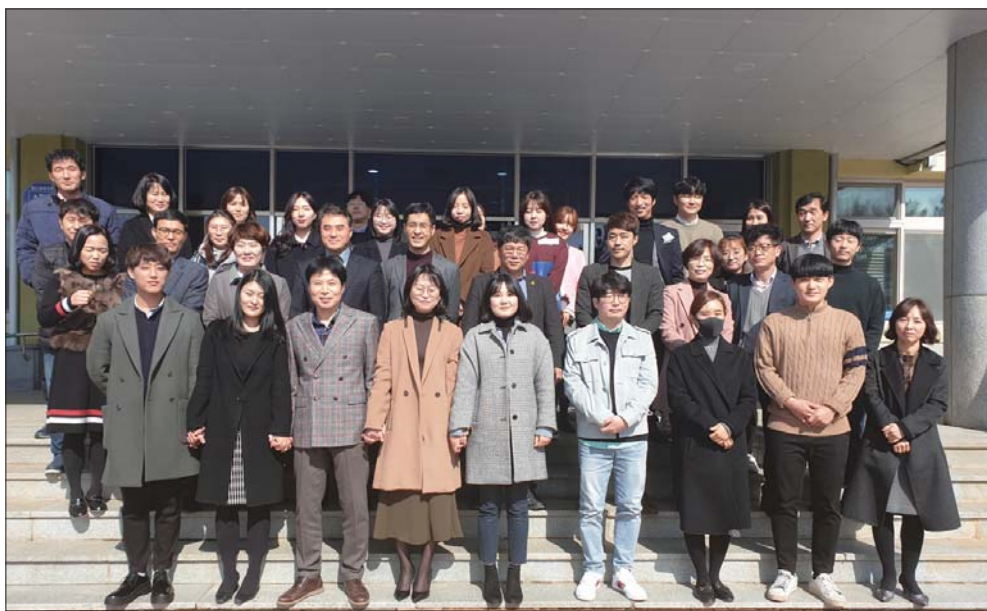
대학 기숙사와 원룸 등에 자취생활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2주간의 자가격리도 심리적 어려움도 있었을 것에 미용건강과 교수들이 직접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먼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외국인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담한 후 미용건강과 교수 4명(김은영, 김진주, 진란희, 이태엽 등)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유학생들에게 쌀, 라면, 과일, 간편식품, 초코파이, 삼푸, 세제, 김, 스낵, 생리대 등을 제공했다. 또 자취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은영 교수는 "코로나 19보다 따뜻한 코리야의 인정으로 공부를 마친 후 고국에 돌아가서 훌륭한 미용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미얀마 유학생인 투부(2학년)는 "코로나19 초반에는 고국의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은 대학 측과 미용건강과 교수님들의 나눔과 배려의 마음에 부모님들도 걱정을 덜 하신다"면서 "대한민국의 따스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받은 정성과 배려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에서 만든 '아무노래 챌린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동영상에는 정찬호 교육장을 비롯해 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손씻기·사회적 거리두기·온라인 학습 등 코로나19 대응법을 재미있는 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안교육지원청, 코로나 극복 '아무노래챌린지' 눈길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에서 만든 '아무노래 챌린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에 올라온 '부안교육지원청 코로나 극복 아무노래 챌린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를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개사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촬영은 교육지원과 유

장근 장학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유치원업무 담당하고 있는 윤장학사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코로나 예방수칙을 안내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아무노래 챌린지를 떠올렸다.

기획에서부터 개사, 편집, 노래까지 1인 다역을 맡은 윤 장학사는 "주변에서 아무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자주

들었다. 7살, 9살 딸들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면서 '아무노래 챌린지'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초등학교 근무할 때 졸업상을 찍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동영상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정찬호 교육장을 비롯해 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손씻기·사회적 거리두기·온라인 학습 등 코로나19 대응법을 재미있는 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체육회, 코로나 성금 기탁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21만원을 사랑의열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또한 전북체육회 실업팀 지도자들과

수탁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아중수영장 직원들도 마음을 보탰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차원으로 별도의 성금 전달식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성금을 전달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민체전 6월로 연기

전북도민체육대회(회장 김종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가량 연기된다.

30일 전북도와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오는 5월 남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7회 전북도민체전이 코로나19 여파로 6월로 잠정 연기된다고 밝혔다.

당초 도민체전은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37개 종목에서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울

해 도민체전의 경우 6월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그간 시·군 체육회장 사무국장 간담회와 시·군 체육회장 간담회, 도민체전 개최 종목단체 의견수렴 및 전북도·대회 개최지인 남원시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도민체전을 비롯해 다음달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다. 이 밖에도 도지사기 전국합기도대회와 도지사기 방상대회 등도 잠정 연기됐다.

/장은성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